

김동완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김동완 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008~2009년까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했던 김동완입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은재호 박사가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논의를 띄우더니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의 이름으로 다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보고 집권세력을 의문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데 확신을 가지고 정치권의 대통령후보들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대장동 사건으로 온통 머리가 아픈데 여기에 개헌의 여론조사결과를 띄운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와 고향을 위해 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의석이 102석으로 줄어 현역의원의 시도지사 출마가 어렵고,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한다고 하여도 개헌저지 등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이 13명, 17개 시도 교육감 중 민주당이 14명로서 왜곡된 국정을 바로 잡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난세를 극복할 대통령을 뽑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까 생각하고 저 자신도 충청남도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직에 출마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내무부로 발령을 받아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수,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운영과장 및 지방재정과장과 지방세제국장, 대통령비서실의 행정비서관실 행정관, 사회정책비서관과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 등 34년간 행정의 중앙과 지방을 두루 근무한 바 있습니다. 1981~1984 육군학사장교 1기생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1977~1979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재정(Public Finance)'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수 재직시 '홍삼전매제도 폐지'와 '금산 인삼제의 전국축제화' 등을 추진하였고,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현노선 추진, 세종시 확정, 내포신도시로 도청이전, 백제역산문화단지 추진 등을 실무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무부 방재계획과장으로 재직시 '풍수해대책법'을 가뭄,지진을 포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하였고 행정자치부 재정과장으로 재직시에는 '지방재정법'을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민선시대에 맞게 전문개정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으로 재직중에는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 등 3개로 나누어 분법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지방세 기본틀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 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당으로 영입되어 지난 2012년 고향 당진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당선되었고, 국회 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당시 우리나라 산업계의 가장 고질적 병폐인 기술탈취를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국민의힘 당진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충남이 '멍청도'로 불리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충남의 30년 미래설계에 혼신을 바쳤습니다. 충청도의 '무대접론'에 허탈해 할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여 '남들에게 대접해 달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0대 초반에 과로로 쓰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지난 20년간 통증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겪다 보니 모든 일을 접고 정년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혼연히 일어서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어 직접 찾아뵙고 고견을 경청하고 나라와 고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 김동완 전 국회의원